

사라진 내야 기준점...‘틀’ 깨고 ‘판’을 바꿔라

‘박찬호 이적’ KIA, 유격수 공백 수비 운영 첫 변수

‘위기를 기회로’ 흔들린 내야재정비 ‘최적 조합’ 찾아야
‘선택과 집중’ 맞춤형 시스템 설계, 새 시즌 경쟁력 좌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KIA는 그의 공백을 메우며, 내야 전체 수비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두산 구단은 18일 “박찬호와 4년 총액 80억원(계약금 50억원·연봉 총 28억원·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박찬호는 리그 최고 수비력을 갖춘 선수로 젊은 내야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팀을 지켜온 박찬호는 KIA와의 긴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됐다. KIA 입장에선 내년 시즌 전력에서 결코 가뭄지 않은 손실이다.

야구에서 유격수는 단순히 한 포지션이 아니다. 내야 전체의 움직임과 호흡을 잇는 핵심 역할이다.

KIA가 박찬호를 잃으며 고민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빠진 자리는 한 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팀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수비 기준선이기도 했다.

특히 이 포지션은 내야에서 활동량이

가장 많다. 타구가 나오기 전부터 위치를 바꾸고, 주자가 나가면 다음 움직임을 미리 계산한다. 주변 내야수와의 말보다 눈빛이나 작은 제스처로 타이밍을 맞춘다. 체력은 기본이고, 순발력과 센스를 갖춰야 하는 자리다.

박찬호는 꾸준한 출전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소화해왔다.

하지만 새 선수가 들어오면 모든 게 초기화된다. 병살 플레이의 타이밍, 3루수와의 커버 구역, 수비 위치의 깊이 등 기본적인 루틴이 선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KIA는 내야가 움직이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

투수도 영향을 받는다.

투수는 뒤에 어떤 유격수가 있는지에 따라 공배합이나 코스를 조절한다. 특히 땅볼 유도형 투수는 유격수의 수비 범위와 첫 반응에 크게 의존한다. 그 한 자리에 따라 투수도 리듬을 다시 잡아야 한다.

수비 한 명이 바뀌면 투수가 던지는 공 하나까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그렇다고 KIA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건 아니다. 백업 멤버 김규성과 박민은 올 시즌 부분적으로 유격수를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쌓았다. 정현창은 성장 가능성이 큰 자원으로 평가받는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수비훈련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여기에 본래 유격수 출신인 김도영의 전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이번 스토브리그부터 시행되는 아시아쿼터제 역시 하나의 보완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새로운 수비 시스템을 맞추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KIA가 잃은 것은 선수 단 한 명이 아니다. 수비의 출발점이자, 내야 전체를 지탱하던 축까지 사라진 셈이다.

내년 시즌을 앞두고 이 자리를 중심으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이 어긋난다면, 수비 조직은 경기 중

작은 실수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내야를 얼마나 안정시키느냐에 따라 KIA의 내년 경쟁력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올겨울 오프시즌이 KIA에 더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홍철 기자

광주은행 진성익·조송현 ‘金보다 값진 銀’

인니 인터내셔널 챌린지 남자복식 결승서 ‘부상 악재’...선수보호 차원 기권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진성익과 조송현이 국제무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진성익-조송현 조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요기야카르타에서 열린 2025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챌린지 남자복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푸트와 에르위안사-다니엘 에드가 마르비노 조를 상대로 선전을 펼쳤으나 돌발 부상이라는 악재가 나오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1세트를 22-20으로 따내며 승기를 잡은 진성익-조송현 조는 2세트 역시 21-19로 가져오며 승리를 눈앞에 뒀으나 조송현이 무릎에 불편함을 느꼈고, 홍지훈 감독은 선수 보호차원에서 기권을 선택했다.

32강전에서 인도네시아 무하맛 알 파우잔 함바-레날디 사모시르 조를 2-0(21-16 21-14), 16

강전에서 인도네시아 타우픽 아데르요아-산산 헤르디안사 조에게 2-1(13-21 21-17 21-15), 8강에서 대만의 린 지아옌-린 용성 조를 2-0(21-18 21-17)으로 꺾고 준결승에 안착한 진성익-조송현 조는 인도네시아 알렉시우스 웅키타바 수바키오-아키노 에바노 케네디 탕가 조를 상대로 2-1(22-20 17-21 21-15)로 제압, 결승 무대에 올랐다.

홍지훈 광주은행 배드민턴 감독은 “두 선수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돌발 부상으로 결승을 완주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조송현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다. 다만 다가올 국가대표선발전 대비와 함께 선수 보호차원에서 기권하게 됐다. 앞으로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쓰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챌린지 남자 복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진성익(왼쪽)과 조송현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제공〉



전남도장애인체육회, 다문화 가정·장애인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장애아동 생존수영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과 자존감 회복 지원에 나선다.

목포시가죽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와 장애라는 복합적 요인을 지닌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영 교육으로 진행된다. (사진)

아이들은 물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또래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참여 아동들은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로 인해 또래 관계 형성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 아동들이

물속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움직이며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임진출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다문화가정 장애아동들은 사회적 지원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교육이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돼 왔다”며 “이번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역사회가 함께 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박희중 기자

전남·서울 생활체육인, ‘천년의 빛’ 영광서 하나되다

전남과 서울 생활체육인들의 영광에서 스포츠로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교류의 장을 가졌다.

전남도체육회는 18일 “지난 14-15일 영광군 일원에서 ‘2025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류행사는 전남과 서울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종목별 교류와 체육·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시·도 협력체계 구축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4년 상호 교류를 시작한 지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교류행사에는 120여명의 전남과 서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검도(영광 해룡고), 수영(영광스포티움 실내수영장)·농구(영광 국민체육센터), 족구(영광 생활체육공원) 등 4개 종목 친선 교류전을 진행했다.

체육행사 외에도 불갑사와 불갑산생태공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원불교 영산성지 일대를 견학하며 문화체험도 함께하

‘함께 한 21년’...2025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 성료



2025 전남·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영광 문화체험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전남·서울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이번 교류는 전남과 서울이 21년간 이어온 신뢰의 역사를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교류 문화를 지속해 양 지역 체육인들이 상호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추신수, 한국인 최초 MLB 명예의 전당 후보 선정

추신수(43)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명예의 전당 입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야구기자협회(BBWAA)는 18일 2026년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는 새 후보 12명과 기존 후보 15명을 발표했다.

추신수는 콜 해멀스, 라이언 브라운, 맷 캠프, 하위 캔드릭, 대니얼 머피, 릭 포셀로, 에드윈 엔카르나시온, 알렉스 고든, 헌터 펜스, 니마케 이키스, 지오 곤살레스와 함께 후보가 됐다.

2006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추신수는 2020년까지 16시즌 동안 1천652경

기에 출전해 6천87타수 1천671안타(타율 0.275), 218홈런, 782타점, 157도루, 출루율 0.377을 기록했다.

그는 3시즌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고, 2018년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기록인 52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좋은 성적을 올렸다.

MLB 명예의 전당은 10시즌 이상 활약한 선수 중 최근 5년 이상 미국프로야구에서 뛰지 않은 선수를 대상으로 명예의 전당 입회 후보 자격을 준다.

한국 선수가 MLB 명예의 전당 입회 후보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